

해 외 출 장 복 명 서

| | | | | | | |
|--|--|---|-----|---------|--|------------|
| 출 장 자 | 소 속 | 평등정책연구실, 가족연구실 | 직 위 | 연구위원 | 성 명 | 김이선 황정미 |
| 출장기간 | 당 초 | 김이선: 7.8-15 황정미: 7.8-11 | 출장지 | 당 초 | 일본 동경,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야마가타현 야마가타시, 도자와무라 | |
| | 변 경 | 김이선 : 7.8-16 (태풍으로 인한 항공기 결항) | | 변 경 | 변경없음. | |
| 출장목적 |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및 다문화공생 정책과 서비스 현황 파악하여 협동연구 추진에 반영하고자 함. | | | | | |
| 경비부담 | 우리원 부담(기본연구사업비, 연구관련사업비, 수탁연구사업비) (4,310 천원) | | | | | |
| | 주최측 부담 | | | | | |
| 주최기관 | | | | | | |
| 방문기관 | | 면담자 | | 협의사항 | | |
| 신주쿠 다문화공생 플라자 | | 신주쿠 문화·국제교류재단 다문화공생과장 Fumiko Yanagida, 신주쿠구 지역문 화부 문화국제과 문화국제 계 주사 Ryuta Tsuchiya | | 붙임자료 참조 | | |
| 특정비영리활동법인 KfV (Kawasaki Foreigner Volunteer) | | 김희숙 이사장 | | | | |
| 가나가와 국제교류재단 | | 국제협력과 마유미 호소다 과장, 정보교류센터 시니 치로 고야마 과장 | | | | |
| 가와사키시 국제교류협회 | | 가와사키시국제교류협회 사 무국차장 Atsushi Inose, 가와사키시 시민국 남녀공 동참획실 외국인시민시책 담당 Takamura Kenji | | | | |
| // | | 가와사키시 외국인대표자회 의 위원 겸 라이콤 다문 화교실 대표 박해숙 | | | | |

| | | |
|--|---|--|
| <p>야마가타시 국제교류센터 · 야마가타시 국제교류협회</p> | <p>야마가타시 국제교류센터 소장 겸 국제교류협회 사무국장 수토 마사히로, 야마가타시 국제교류센터 부소장 고바야시 도시가주 통역: 고바야시 메구미(국제교류센터 국제교류원)</p> | |
| <p>도자와무라 · 도자와무라 국제교류협회</p> | <p>산업진흥과 前田公平, 도자와무라 국제교류협회 Haga Kinichi 회장</p> | |

붙임 : 해외출장결과보고서

2007. 7. 27.

출 장 복 명 자 : 김이선 연구위원
황정미 연구위원

해외출장 결과 보고서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보고자 : 김이선(평등정책연구실 연구위원)
황정미(가족연구실 연구위원)

1. 출장 목적

- 결혼과 노동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 이주가 급증하면서 이들을 대하는 한국인의 의식과 태도, 한국인과 이주자간의 관계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07년 본원의 협동연구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1차연도 연구를 통해서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수용 패러다임과 시민의식을 점검하고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진전을 위한 변화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함.
- 이와 관련해 일본의 사례는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함. 일본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노동이주자와 결혼이주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산하 국제교류센터, 다문화공생센터 및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관련 대책이 추진되어 온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특히, 외국인의 지역생활적응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국제이해 수준과 다문화공생의식을 증진하고 일본인과 외국인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음.
- 그 가운데에서도 해외 출장을 통해 방문할 지역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님.
 - 동경 신주쿠구는 일본 내에서도 가장 많은 수의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임. 외국인 관련 사회문제도 빈번히 발생한 바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지역 활성화운동도 전개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음.
 -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는 주요 공업지대로 각국 출신 이주 노동자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이주민들을 위한 지방정부의 지원 서비스, 일본인의 다문화공생의식 관련 프로그램 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지역임.
 - 야마가타현은 농업지역으로 심각한 인구 유출, 총각들의 결혼난을 겪은 바 있음. 80년대 중반부터 필리핀, 한국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이 급격히 증가하였음.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일본어교실이 개강되고 생활정보 및 상담서비스, 의료서비스, 모성보건서비스, 자녀교육 지원 등이 추진되고 있음. 특히, 도자와무라에서는 ‘고려관’을 개관하고 한국출신 여성들이 개발한 김치, 냉면 등을 생산, 판매하는 등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들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산하 국제교류협회, 다문화공생프라자 등을 방문하고 이와 관련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주여성들과의 개별 인터뷰를 실시하여 이주자 현황과 이들에 대한 일본인 주민들의 의식과 관계, 지역주민의 국제이해·다문화공생의식

증진 프로그램 개발, 추진 현황을 파악하여 협동연구 추진에 반영하고자 함.

2. 방문기관 : 총 7개 기관

- 신주쿠 다문화공생프라자
- 가나가와현 국제교류재단
- 가와사키시 국제교류협회
- 야마가타시 국제교류센터, 야마가타시 국제교류협회
- 도자와무라, 도자와무라 국제교류협회, (고려관 관람)

* 개별인터뷰: 3인

- 김희숙(NPO KFV (가나가와 외국인 자원봉사) 이사장)
- 박해숙 (가와사키시 외국인대표자 회의 위원)
- 武田 星(야마가타 거주 한국출신 결혼이주여성) 비공식인터뷰

3. 세부일정

| 출장자 | 날짜 | 방문기관 및 담당자 |
|---------|----------|---|
| 김이선,황정미 | 7. 8(일) | 서울--> 동경 |
| 김이선,황정미 | 7. 9(월) | 10:00-12:00 신주쿠 다문화공생프라자 17:00-17:40 NPO KFV 김희숙 이사장 인터뷰 |
| 김이선,황정미 | 7.10(화) | 10:00-12:00가나가와현 국제교류재단 14:20-16:30가와사키시 국제교류협회 17:00-18:00가와사키시 외국인대표자 회의 박해숙 위원 인터뷰 |
| 김이선,황정미 | 7.11(수) | 동경--> 야마가타 (황정미: 동경--> 서울) |
| 김이선 | 7.12(목) | 15:00-17:00 야마가타시 국제교류센터 *야마가타 거주 한국출신 결혼이주여성 비공식인터뷰(일본이름: 武田 星) |
| 김이선 | 7. 13(금) | 야마가타--> 도자와무라 14:00-16:00 도자와무라, 도자와무라 국제교류협회, * 고려관 관람 |
| 김이선 | 7.14(토) | 도자와무라--> 야마가타 --> 센다이 |
| 김이선 | 7.15(일) | 센다이 * 태풍으로 인한 항공편 결항으로 귀국일정 연기 |
| 김이선 | 7.16(월) | 센다이--> 서울 |

<인터뷰 세부내용>

[1] 2007. 9. 7. 오전 10:00~12:00

장소 : 신주쿠 다문화공생 플라자 (오쿠보 병원/ 하이피아 빌딩 11층)

인터뷰 대상자 : 신주쿠 문화국제교류재단 다문화공생과장 Fumiko Yanagida

신주쿠구 지역문화부 문화국제과 문화국제계 주사 Ryuta Tsuchiya

○ 다문화 공생 플라자의 전반적인 활동

- 다문화공생플라자는 2년 전 설치되었음. 설치되기 이전에 신주쿠 구에는 외국인을 위한 일본어 교실이 1곳 밖에 없었으며 외국인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이 거의 없었음. 플라자 설치후 외국인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됨으로써 정보교환이 활발해 지고, 외국인들로부터 활발한 정책 제안이 나오고 있음.
- 주요 홍보수단은 : 홈페이지 운영 (플라자, 구청), 홍보전단지, 플라자를 이용한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알리는 효과가 가장 큼.

○ 신주쿠 구의 외국인 현황

- 신주쿠 구의 전체 인구 약 30만명중 외국인은 약 3만 명으로 1할에 육박함. 신주쿠는 도쿄도 내 23개 구 중 외국인이 가장 많은 구이며, 따라서 일본 전국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
- 국적별로는 한국인이 13,000명 정도로 가장 많고 이들은 주로 “new comer” 임. 다음은 중국인으로 약 9,000명 정도 임. 한국인과 중국인을 합하면 전체 외국인의 75%를 차지하며 나머지 25%는 100여 개국 출신의 다양한 외국인으로 구성됨.
- 신주쿠 지역의 특징은, 다른 지역의 경우 중국인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데 비해 한국인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임. 특히 오쿠보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가게가 많고 한류 붐으로 전국의 일본인들이 한류 상품을 사기 위해 오쿠보를 방문하고 있음.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고 단기 비자로 오쿠보에 체류하고 있는 한인의 수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됨.

○ 다문화 공생플라자의 공간 구성

1) 다목적 room

- 오전에는 일본어 교실 프로그램, 오후에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

- 외국인/다문화 관련 활동을 하는 모든 단체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무료로 사용
- 아침 9시 ~ 밤 9시까지 개방하며 매월 2,4 수요일 이외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모두 개방함
- 신주쿠 지역은 장소대여 비용이 비싼 지역이므로 이 공간은 관련 단체들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 월 이용인원은 2,000명 정도에 이름

2) 자료정보 corner

-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일본에 관한 안내 책자, 외국인들을 위한 도서, 다양한 정보 전단지(구청 및 관련 단체)가 제공되며, 인터넷 무료 이용도 가능함.
- 다언어 대책 : 일본어 전단지에 한자를 읽은 방법을 표시하며, 모든 홍보전단지는 한국어/중국어/영어/일본어의 4 언어로 표기함.
- 이전에는 외국인을 위한 안내를 책자 형태로 제작하였으나, 정책의 변화에 따라 최신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이주자가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전단지 형태로 발간하고 있음. (복지/ 재해 대비 정보/ 유학생 정보/ 교육 정보 등)

3) 상담소

- 신주쿠 구 내 외국인 이주자 대상 상담소는 다문화 공생플라자와 구청 등 2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모두 다문화공생센터에서 운영함.
- 요일별로 언어를 정하고, 두 군데의 요일별 언어가 겹치지 않도록 조정함.
- 현재 native speaker 의 도움이 제공되는 언어는 한국어, 중국어, 타이어, 미얀마어, 영어임. 통역은 주로 NPO group에서 파견되며 전문 상담원이 내담자와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줌.
- 상담소는 주로 문제를 발견해 관련 전문가에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며, 플라자 내의 상담은 생활상담이 많고, 구청의 상담소에서는 아동 취학이나 체류자격과 관련된 상담이 많음.
- 주요 상담내용을 소개하면,
 - 중국인: 교통사고 후 보상 문제, 불법 저임금 고용주 문제, 회사 도산 이후 임금체불 등
 - 여성문제 : 중국, 타이 등 국제결혼 여성이 남편 사망 후 집에서 쫓겨난 경우, 유산 상속 문제 등을 상담
 - 아동 : 동남아 국제결혼 여성들이 이전 결혼에서 낳은 본국 자녀들을 일본에 데려오는 경우 일본 학교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 등.
 - 한국 : 심각한 문제에 대한 상담은 적은 편임. 아마도 지역 내 한인교회 등 한인

지역사회 network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짐작됨. 일본 유학후 일본 기업에 대한 취직 문제를 상담하는 유학생 사례 등이 있음.

- 법무부 실무자가 나와 출입국 관련 상담도 하고 있음. 주로 서류 배부와 간단한 상담을 하며 수속은 하지 않음. 매일 4-5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음. 때로는 불법 체류자가 출입국 담당자를 두려워 하여 다문화 공생센터 상담원이 로비까지 내려가 상담하는 경우도 있음. 출입국 상담소에서는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내담자들이 두려워하는 경우도 종종 있음.

○ 다문화 공생플라자의 주요 내용은 일본어 교육임.

- 신주쿠구 내에 모두 8곳의 일본어 교실이 운영 중이며 4곳은 센터에서 직접관리, 나머지 4곳은 자원활동가들이 운영함.
- 자원활동가들이 운영하는 일본어 교실은 주로 공공시설(초등학교, 공공센터 등)을 이용하여 월 8회에 1000엔 미만의 회비를 지불하는 수준의 거의 실비로 운영됨. 일과 후에 클래스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며, 초/중급 등 level에 따라 수업 운영 중
- 최근에는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하는 일본어 교실을 운영함
- 취학 아동의 경우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일본어 수준을 높이는 문제가 있음. 이들을 위해 별도의 class를 운영하기 보다는 각 개인별 수준에 맞는 일본어 회화 자원활동가를 연결해 줌.

○ 일본어 교육 자원활동가 모집 및 양성은 다문화 공생플라자의 중요한 활동임

- 자원활동가는 특별한 조건(학력 등) 없이 희망자를 모집하여 10~20회의 교육과정을 운영함. 최장 교육과정은 50회를 하는 경우도 있음. 교육비는 1회당 10000~20000엔 정도임.
- 자원활동가는 주로 자녀교육을 마친 중장년 여성, 정년퇴직한 남성 층이 많음.
- 교사 양성과정에 특별한 고정된 교육과정이나 교재는 없으며, 일본어를 가르치는 skill 뿐 아니라 외국에서 온 사람과 교류하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폭넓은 시각의 수용 등을 강조함.
- 현재 신주쿠 구 내에서 활동하는 자원활동가 일본어 교사는 60명임
- 자원활동가의 열기는 다문화공생센터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초임.

※ 질문과 답변

○ 신주쿠 내 일본인-외국인 갈등 상황

- 신주쿠 구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외국인이 거의 없는 지역과 집중 거주하는 지역이

있음.

- 동경한국학교(초, 중 고)는 한국인에게 인기가 많고 인근에 한국인이 집중 거주하고 있으나 주로 안정된 직장이 있는 new-comer가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음. 일본에서 외국인과의 갈등이 일어나는 문제들은 쓰레기 배출이나 소음 등이 많은데, 한국학교 부근의 한인들은 주로 맨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충돌은 없는 편임.
- 주로 갈등이 부각되는 지역은 오쿠보 지역임. 작은 자영상점이 많고 일본식 소형 주택도 많음. 이미 오쿠보의 어떤 지역은 주민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며, 일본인 입장에서 외국인의 간판이 늘고 한국어가 골목에서 들려오는 등 생활환경이 바뀌는 것에 대해 불안감이나 위화감을 느끼고 있음. 일부에서는 외국인 철수를 원한다는 의견도 있음.
- 일본인들은 오랫동안 균일한 가치를 유지하여 왔으나, 외국인의 증가는 막을 수 없는 추세이며 특히 일본의 노동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다문화 공생사회에 일본인들이 적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 일본인 대상 계몽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음.

○ 일본인 대상 프로그램 현황

- 다문화 공생 플라자에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첫째, 자원활동가 양성 강좌, 둘째는 국제이해교육 강화임.
- 국제이해 강좌는 월 1회 개최. 내용은 매우 다양함.
- 강좌내용 사례 : 캄보디아에 아동 그림책 보내주기 운동 소개 (일본 그림책에 tape를 붙이고 번역내용을 넣어서 보내는 자원봉사활동 등), 한국의 전통 놀이 체험, 미얀마의 차나 타이 과자를 먹으며 이야기 하기, 아프리카의 전쟁 상황과 소년병사의 이야기 소개 등.
- 강좌의 강사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이용해 섭외하며 그 나라 출신자에게 기획을 맡김.
- 1회당 대략 30~60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강좌 주제에 따라 수강자의 구성이 매우 다양하므로 뚜렷하게 어느 계층이 국제이해강좌 수강층이라고 말하기 어려움. 가능하다면 젊은 세대를 많이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음.
- 홍보는 신주쿠구에서 발행하는 홍보지 (월 3회 15만부 발간), 신문에 넣는 전단지 등을 활용함.

○ 일본의 이주자 정책에 대한 의견

- 일본의 경우 국가정책에 모순이 있음. 즉 일본에 어떤 외국인을 입국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정리된 입장이 없음. 법적으로는 단순노동자의 입국을 불허하고 있으나, 실제로 니케 브라질인이나 연수생들을 단순노동자로 들어오고 있는데 법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제도에 기반하여 지원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려움.

- 일본의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또한 외국인 노동력이 들어오면 결국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의 문제, 생활의 문제등이 발생하기 마련임. 단지 노동력 수입이 아니라 사람과 생활의 문제로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접근이 필요함.
- 지자체 단위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센터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모아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애로사항이 있음. 가령 참정권이나 영주권 문제 등은 중요한 문제이나 해결되지 않고 있음. 이 부분은 지방자치 주민선거권을 허용한 한국이 더 앞서가고 있다고 봄.

○ 자원활동가 참여의 특징과 장단점

- 자원활동가로 주로 활동하는 사람은 전후 baby boom 세대가 많음. 이들은 고도성장 시대에 부를 누린 세대이며 경제적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음.
- 자원활동가의 모집보다 더 중요하고 힘든 것은 이들이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것임. 이들은 교류, 사람과의 만남, 일에서 느끼는 보람을 중시하며, 플라자의 직원들도 이들에게 항상 감사의 표시를 하고 인사 하도록 주의하고 있음.
- 자원봉사 활동가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한계도 있음. 결국 전문가나 전업종사자가 아닌 이들의 책임이나 자율성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가 문제임. 양성과정의 첫 시간에 마음가짐을 매우 강조하고 있음. 외국인 이주자들, “바로 이 사람들이 당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결국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자원활동이 가능함.

○ 다문화 공생플라자의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일본인들에 대한 대처

- 다문화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일본인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 일부에서는 다문화 공존 자체가 필요 없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대해 신주쿠 플라자가 대응하는 방법은 첫째, 이들의 불만을 잘 들어주고 실제로 이주민의 불법적인 행위로 불편을 겪고 있을 경우는 이를 해결해주고 있음 (불법 증축, 불법 간판, 소음 등에 대한 조치)
- 더 중요한 문제는 감정적인 거부감임. 이를 위해 국제이해 강좌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여 미래의 일본인들이 다문화 사회에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노력하고 있음.
- 외국인과 일본인을 대립시키는 생각의 틀을 고집한다면 별로 달라질 것은 없음. 그 보다는 개인 대 개인의 만남으로 생각하고 서로 접촉하는 기회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2] 2007. 7. 9. 오후 5:00~5:40

가와사키역 구내 찻집

인터뷰 대상자 : 특정비영리활동법인 KFV 김희숙 이사장
(Kawasaki Foreigner Volunteer)

○ 창립 배경

- 2002. 2월 창립
- 가와사키 거주 외국인들의 자원봉사 활동 단체로 국제이해 교육을 주요 사업으로 함
- 가와사키 외국인 시민대표자 회의 (1996 발족) 1/2기에 참여한 외국인 위원들을 주축으로 하여, 외국인을 정부의 지원대상만 보는 시각을 바꾸기 위해 외국인들이 주체적, 자율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자원활동 단체로서 활동을 시작함.
- 가와사키 교육위원회에서 민족문화 만남 수업 프로그램을 위한 위탁사업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초·중·고등학교에서 주로 국제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가와사키 외국인 시민대표자 회의

- 1996년 발족. 임기는 2년이며 한 번 연임할 수 있으나 4년 이후에는 연속해서 임기를 지속할 수 없음.
- 설립 당시에는 가와사키 거주 모든 외국인에게 신청서를 우송, 모두 257명이 응모하였고 이중 27명을 1기 위원으로 선정함. 현재는 외국인이 너무 많아 우송하지 않으며 응모자는 점차 줄어들고 있음.
- 초기에는 단체 추천이 있었으나 1기 구성당시 민단과 총련 사이에 갈등이 있어 형식적으로는 단체추천 제도가 없어졌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선정은 국적별 민족별로 하지만 일단 선정된 위원은 자기 국적이 아니라 모든 외국인 대표한다는 원칙에 따라 운영됨. 그러나 현실은 결국 국적이거나 민족에 따라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현상이 나타남. 이러한 모순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남. 현재 국적에 따른 선정 원칙을 바꾸자고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으나 이러한 원칙 자체가 조례에 의한 것이라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
- 외국인 위원회는 연 8회 회의를 개최하며 그 외 field work, 축제 등에 참여함.
- 외국인 위원회는 시장에게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며, 실제로 외국인들은 참정권 등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다른 수단이 없으므로 가와사키 시에서는 정책 제안을 수용하려는 경향을 보임. 대표적인 사례는 주택보증인을 세우기 어려운 외국인을 위해 보증보험제도를 시에서 도입한 것임.(2003년 경) 이 제도는 외국인 뿐 아니라 혼자 사

역, 특히 타이, 필리핀 여성들이 서비스업으로 유입되었고, 이후 중소기업의 다양한 업종으로 더 다양한 노동이주자들이 증대하였음.

: 초기 이주여성은 주로 아시아 지역 출신의 흥행비자(댄서, 가수 등) 소지자가 많았으며, 공장노동자는 아시아 남성이 대다수로 불법체류자가 많았음.

: 브라질, 페루, 아르헨티나 등 남미에 거주하던 일본계 이주자들이 늘어남.

특히 1990년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일본계 외국인들은 무비자로 입국 및 체류가 가능하고 가족동반도 허용됨. 이후 이들이 공장노동자로 다수 유입됨. 이른바 니케이진 노동자들이 공장지대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게 됨.

(가나가와 현에도 공단 지대가 위치함)

- 국제교류 관련 정책의 확대

: 1975년 당시 가나가와현의 나가츠 지사가 ‘民際外交 (민사이가이코)’, 즉 시민 위주의 국제교류 확대라는 개념을 도입함. 1970년대 일본의 고도성장 이후 경제적 안정을 누리면서 해외로 시선을 돌릴 여유가 생김. 이에 기반하여 전국 최초로 가나가와현 국제교류협회가 1977년 설립되었음.

: 1980년대 일본 전역의 지자체에 국제교류협회가 창설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축제, 이벤트 등 행사중심이였음. (예: 1983년 해외유학생 10만 명 유치계획 등)

- 난민 수용의 경험

: 1970년대 후반 인도차이나 지역의 난민이 일본에도 대량 유입. 이를 계기로 이벤트성 교류보다는 보다 심도있는 국제협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시각의 변화가 나타남.

: 1970년대 후반부터 국제협력 NPO가 설립되기 시작, 1998년 NPO 관련법이 제정됨으로써 이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짐.

○ 일본의 이주정책 현황

- 일본 중앙정부의 차원에서는 이민자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나 비전이 없는 상황임.

: 외국인을 보는 시선은 각 부처의 입장에 따라 다름. 예를 들면 경제산업성이나 후생노동성은 이주자를 ‘값 싼 노동자’로 인식하며, 국토성은 관광객, 법무성은 출입국관리, 경찰청은 범죄 방지에만 관심을 갖는 등 각각 다른 시각을 취함.

- 총무성이 2005~6년 다문화 관련 연구회를 운영, 그 결과로 다문화 공생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였음. 여기에서 외국인을 주민이자 생활자로서 보는 시각을 처음 제공하였음. 아직도 외국인을 전 인간적으로 보는 시각은 부족한 상황임.

- 총무성은 지자체 관리 및 지원을 담당

: 2006년 다문화 공생을 위한 지침서를 전국 지자체에 배부. 각 지역에서는 이 지침에 의거하여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 만들기를 위한 자체적인 지침을 제정하고 있음.

: 지침서 배부 이후 여러 지역으로 긍정적 태도가 확산됨.

: 지방공부제 (세원이 부족한 자치단체에 총무성에서 세금을 배분하는 제도)에 의해 다문화 공생정책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음. 즉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세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

- 전체적으로 생활자로서의 외국인, 외국인 주민을 위한 서비스는 중앙정부보다 지자체가 훨씬 앞서 있음. 지역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에서 통합된 정책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답답하게 여기고 있음.

-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한 인력부족

: 일본의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 외국인등록은 20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에 미달 하지만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최근 개호담당 간호사 및 일반 병원 간호사 부족이 나타나며 향후 3년간 간호사 인력 1만 5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 때문에 필리핀과의 FTA 체결에서 향후 2년간 1천명의 인력수입을 허가하기로 결정함. 그러나 수요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숫자임. 정부는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필리핀인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신중하고 조심스런 태도를 취하고 있음. 또한 이들이 일본으로 이주할 경우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중앙정부는 특별한 비전이 없음. 결혼, 자녀교육 등에서의 어려움과 문제들은 결국 지역에서 벌어질 것임.

○ 가나가와 현의 이주자 관련 정책 사례

- 가나가와 현 외국인대표자 시민회의(현재 5기) 구성

: 2년 임기로 지사에게 정책보고서를 제출.

- 외국인대표자 시민회의에서 제안한 주요 정책내용

: 주거문제, 특히 주택 임대시 보증인 문제

: 자녀교육의 어려움

: 병원 진료 시 통역의 어려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나가와 현 내에 의료통역 전문 NPO 재단 설립. NPO + 현 정부 + 의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병원 진료를 원하는 외국인이 연락을 하면 통역 비용을 현에서 지급하는 모델사업을 5년간 진행하였음. 모델사업 기간이 종료되어 내년부터는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황임. 시, 정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임.

○ 가나가와 국제교류재단의 실태조사 실시

- 외국인 정보전달 시스템에 관한 2년간 조사실시, 보고서 발간

- 1차년도 조사

: 현내 총 6개 지역의 외국인 이용 시설(공민관, 도서관, 교류라운지 등)에서 외국인 관련 정보 전단지 수집·배포 현황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

: 실태조사 결과,

① 공민관, 도서관은 정보전단지의 수집에 적극적이지 않음. 일단 비치는 되지만 시간에 흐름에 따라 갱신되지 않는 문제. 그리고 내용의 갱신도 과별로 이루어져 어떤 정책이 달라졌는지 전체적인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음. 최근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가 생김.

② 지자체 간에는 정보 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2차년도 조사

: 직접 외국인 이주자와 인터뷰 실시(스페인, 포르투갈, 캄보디아, 한국어 등으로 조사 실시)

: 주요 조사결과는

① 많은 응답자들이 이러한 정보 자체를 접하지 못하고 있었음

② 민족 집단에 따라 정보를 얻는 통로가 다름. 예를 들면 필리핀이나 남미 출신들은 교회를 통해, 타이 인들은 향신료를 파는 식료품 점에서 정보전달이 용이하게 이루어짐.

③ 인도지나 난민 출신으로 정착한 이주자 중 문맹자도 다수 있음

-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정책 제언서 제출, 일부 추진.

① 현 차원의 외국인 정보유통 센터의 설치 제언

: 07년 4월부터 국제교류재단에서 다언어 생활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각 지자체에서 만든 다언어 전단지를 DB화하고 홈페이지에 올림.

: mailing list를 만들어 각 지자체에서 나오는 원 정보를 다른 지자체에게 전달함.

② 인터넷, 휴대전화 등 IT를 이용한 정보전달 방법 제언

: 06년 모델사업으로 1년간 운영.

: 공단지역 거주 외국인근로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현 내 3개시가 협력, 외국인 모니터 180명이 참여 (브라질, 필리핀 한국인 등).

: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쉬운 일본어 등 4개 국어로 5회에 걸쳐 정보 전달 (한국어 등은 글자 자모가 기계에 표시되지 않아 서비스 불가능)

: 휴대폰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행사, 재해(지진발생 정보 등), 의료 정보 등을 쉽

게 얻을 수 있어 유용하다는 반응이 나옴.

: 모니터링에 참여한 외국인의 특징은, 의외로 40-50대 중장년층이 많았고, 10년 이상 일본에 거주했으나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 모국어로 정보를 얻어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반응을 보임. 이들을 통해 가족, 친구집단 등에게 정보가 전달되는 파급효과도 있었음.

: 모델사업 운영결과 전체적으로 외국인 이용자의 반응은 좋았으나 문제점은 번역료, 서비스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비용부담.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가 과제임.

③ 설날 등 민족이 모이는 날에 직접 방문, 구두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

※ 질문과 응답

○ 국제교류라운지의 역할과 기능은?

- 국제교류센터의 성격과 유사함. 공간은 시에서 제공하고 운영은 자원활동가가 맡아서 함. 일본인과 외국인 간의 상호이해 증진이 목적이며, 교류회 운영, 생활상의 문제 상담 등을 하고 있음. 최근에는 연금관련 문의가 많다고 함.

○ 지방자치체(현, 시)와 국제교류재단 간의 역할분담이나 협력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현에는 국제교류과가 있으나 실제 사업은 하지 않고 주로 코디네이션을 담당함. 그러나 실제로 많은 역할을 하지는 않는 편임
- 시는 정책을 구상하는 수준이며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예는 많지 않음. 시급한 문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음.
- 국제교류재단 : 시나 현이 할 수 없는 조사사업, 조사에 근거한 정책 제언, NPO나 NGO와의 연계사업 등을 담당함.

: 국제교류, 다문화 공생관련 NGO를 선별하여 운영자금을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제공 등 활동 내용에 따라 NGO를 선별하여 조성금을 제공함.

: NGO의 활동내용이 매우 광범위하므로 시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하기 어려우며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 협력관계를 긴밀하게 하기 어려움. 이러한 네트워크는 주로 재단에서 담당.

○ 국제교류재단에서 하고 있는 다른 사업 내용은?

- 일본어 교육 : 각 처에서 일본어 교실 운용. 교사의 고령화, 교사의 세대교체와 운영을 지속할 방법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

- 자녀교육 지원, NGO와의 네트워킹 사업 등에 역점을 둠.
- 연 1회 다문화 이해 이벤트 실시 : 집행위원회에 외국인 이주자가 참여하며, 일본국제교류재단, 자이카 등으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고 있음. 작년 행사에는 23,000명 정도가 참여했으며, 현재 가나가와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중심이 되어 행사가 운영됨.
- 자녀교육 상담 실시 : 타갈로그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 3개 언어로 상담 실시.
: 일본 전체 결혼 17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이며, 국제결혼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녀교육임. 가나가와 현에는 자녀교육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NPO가 있으나 이것 만으로는 역부족이라 작년부터 재단에서 직접 교육상담 사업을 시작하였음.
: 교육상담의 대상에는 자녀, 부모 뿐 아니라 NGO 단체, 학교 교사도 포함됨. 외국인 학생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연락장을 외국어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등을 실시
- * 현재 일본에서는 한 학교당 5명 이상의 외국인 (국제결혼) 학생이 있을 경우 전담 일본어 교사 1명이 파견되는 시스템. 일본어 정규수업 시간에 이 학생들은 별도 교실에서 집중 교육을 받음. 단, 4명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없는 문제.

[4] 2007. 7. 10. 오후 2:20~4:30

- 가와사키 시 국제교류협회
- 인터뷰 대상자 : 재단법인 가와사키시국제교류협회 사무국차장 Atsushi Inose
가와사키시 시민국 남녀공동참획실 외국인시민시책담당 Takamura Kenji

○ 가와사키 시 외국인 문제의 배경

- 2차 대전 이전에 해안가에 임해공단이 조성되었고, 여기에서 (징용을 포함해) 한국인이 주로 일하게 됨. 전후 귀국하지 않고 남은 사람이 다수임. 이 지역이 한국인 집중거주 지역이 되자 일본 각지에서 한국인이 가와사키로 모이는 현상이 나타남.
- 가와사키시의 외국인 9,000명 중 한국·조선 국적자의 후손(재일교포)이 약 6,000명을 차지함. 이들 old-comer는 언어에서는 문제가 없음.
- 이전부터 재일조선인이 많이 살아 일본인과 외국인 간의 반목이 많았음. 현재는 갈등관계에서 공생관계로 진행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며, 주택을 임대할 때 차별 받거나 학교생활에서 따돌림 당하는 문제 등은 아직도 나타나고 있음.

○ 국제교류협회는 1989년 가와사키시 재정으로 설립함

- 1980년대 일본 전역에서 지역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경향이 나타남.
- 그 배경은 이른바 new-comer의 증대, 일본인의 해외 방문이 늘어나면서 국제교류가 확대된 것임.
- 설립 당시 주요 활동은 시민 레벨에서의 국제교류이며 당시에 다문화 공존의 개념은 없었음.
- 현재 협회의 활동은 2 가지 방향 : 국제교류 & 다문화 공생
- 다문화 공생 사업의 역사는 비교적 짧은 편이며 주요 사업은 외국인 상담과 일본어 교실 운영의 두 가지임.
- 특히 외국인 대표자회의에서 외국인 상담사업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외국인 상담시설을 1곳에서 3곳으로 늘려 운영하고 있음.
- 교류협회 직원 17명 중 3명이 외국인임.

○ 가와사키시 외국인 대표자 회의

- 18세 이상으로 시에 1년이상 거주한 외국인 26명으로 구성됨.
- 회의 결과를 매년 시장에게 보고하고 정책을 제언함.
- 첫 성과는 주거문제. 즉 아파트 등을 임대할 때 외국인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조례 제정. 일본에서는 주택임대 시 반드시 보증인을 두어야 하는데, 가와사키시가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어 보증보험을 제도화하였음.
: 이 정책은 임대주나 시민의 협력 없이는 실행 불가능함. 현재는 이 제도에 더 많은 부동산이 동참하도록 노력중임(협력부동산, 집주인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홍보 중)
: 이 정책은 10년에 걸친 외국인대표자회의의 가장 큰 성과로 가나가와 현, 요코하마시 등으로 전파되었음.
: 이 제도는 외국인 뿐 아니라 일본인(장애인, 노약자, 가정폭력 피해자) 들도 유익하게 이용하고 있음.

○ 국제교류협회와 NGO, NPO, volunteer 참여

- 현재 국제교류협회에는 80개의 NPO 및 NGO가 등록되어 있음. 국제교류협회의 주요 역할이 NGO 단체지원 및 네트워킹임.
- 연 1회 각 단체활동을 발표하는 이벤트가 있음 (international festival)
- 재단에 등록된 volunteer는 476명 : 번역 통역, home stay(숙박제공), home visit (초대), 일본어 교육 자원활동 등 내용은 다양함.
- NGO나 자원봉사의 경향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동경에 가까운 도시부에서는 국제교류 관련 자원활동이 활발한 편임. 가와사키시에 등록된 NGO나 발런티어도 국제교

류가 중심 테마임. 특히 국제교류활동은 발런티어 단체가 NGO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음.

- 가와사키 외국인대표자 회의의 위원으로 활동했던 분이 발런티어 단체를 만든 예도 있음(KFV).
- 자원활동가 단체는 주로 문화교류단체가 많음. (기모노, 일본가야금 등을 통한 문화 교류, 60세 이상 중고령자 여성이 주요 집단임)

※ 질문과 응답

○ 이른바 다문화 공생 사업을 어떤 지역(신주쿠 등)에서는 ‘국제교류과’에서 담당하는데 가와사키는 ‘시민국 남녀공동참획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다른 점으로 보인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신주쿠는 new-comer가 많기 때문에 국제교류부서에서 담당할 것으로 보임. 가와사키는 old-comer가 많으므로 먼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는 인권문제로부터 접근하게 되었다. 외국인 문제를 먼저 인권문제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남녀공동참획과도 연결되었음. 처음에는 국제실에서 외국인대표자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인권/국제교류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졌음. 추측컨대 오사카시의 경우도 가와사키와 비슷해서 외국인 등록자 중 70%가 old-comer이고 따라서 차별이나 인권문제가 중시될 것으로 생각됨.

○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는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 외국인들은 다문화 공생사업에 대해 의견 표명을 많이 하고 있으나, 사실 일본인들은 뚜렷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상태임.
- 일본인 대상 사업은 주로 국제이해강좌임.
 - : 국제이해강좌는 민간 국제교류단체와 국제교류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함.
 - : 단독 강연회는 연 3-4회 개최
(예 : “국경을 넘나드는 지원”(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세키구치 상이 아프리카 전쟁지역에서 활동한 내용을 소개하는 강연)
 - : 시리즈 강연회 (전반기 4회, 후반기 4회)
(작년은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하여 “스포츠와 국제교류”를 주제로 다룸. 그밖에 음악을 통한 국제이해교육 등 다양한 테마로 시민의 눈길을 끌려고 노력하고 있음)
- 외국인 대상 국제이해강좌도 있음 : 일본 요리나 떡방아 경험, 하에츠키(제기차기) 등 전통놀이 체험.

○ 시의 외국인 정책에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가?

- 기본적으로 모든 비용은 시에서 충당함. 다만 의료통역의 경우 현에서 재정을 충당 하였음. 국가 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임.
- 문부과학성의 지원: 외국인 학생이 많은 학교를 '모델학교'로 선정, 교사 수를 늘리는데 그 재정은 중앙정부의 예산일 것.
- 총무성의 예산 배분제도(지역공부제)는 가와사키시처럼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서 해당되지 않음.
: 가와사키시는 공단지역이 있어 비교적 세원이 풍부하였으나, 고도성장기가 끝나고 거품이 꺼지면서 시 재정에 어려움이 나타남. 외국인 학생에 대한 지원(통역지원) 등도 예산이 한정되어 학생 수가 늘어나면 지원기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하고 있음. (일본어를 못하는 취학아동에게 8개월간 일본어 교육 및 정신적 지지교육 제공 → 외국인 학생이 늘어나면서 지원 기간이 8개월 이하로 단축)

○ 협회에서 NGO, NPO 지원을 중시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 하는가?

- 자금지원 : 협회에는 단체활동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
- 자원활동 조직에 대한 지원 : 민간단체 연락회의의 사무국을 협회가 운영, 연락업무 등을 맡고 있음.
- 자원활동가 연수회, 활동가 교류회 등도 협회에서 지원함 (개인 자원활동가 자질육성을 위한 예산)

[5] 2007. 7. 10. 오후 5:00~6:00

- 장소 : 가나가와 국제교류재단

- 만난 사람 : 박해숙 (가와사키시 외국인대표자회의 위원, 라이콤 다문화교실 대표)

○ 현재 제6기 가와사키시 외국인대표자회의 위원으로 활동중 (임기 2006. 3 ~ 2008. 3)

- 이전에 시청에서 근무한 경력. 시정 내용을 잘 알고 있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됨.
- 외국인대표자회의는 조례에 의해 운영되며,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선별기준위원회에서 선정함. 국가별 인원비례제. 여성도 상당수 참여하고 있음.

- 현재 외국인대표자회의 구성 : 위원 중 중국인이 가장 많음.
: 한국인의 경우 한국/조선을 반반씩 구성하는 관례가 있음. new comer 1인, 민단계 1인, 조총련계 1인, 재일교포 2세 1인 등 총 4인이 참여하고 있음.

※ 질문과 응답

- 국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위원들 사이의 토론과 합의가 어렵지 않은가?
 - 합의에 이르는 항상 어려움. 언어의 장벽, 문화적 차이 등이 많이 있음. 어려운 가운데 절충해서 어느 정도 결론은 이끌어내고 있다.
- 10년간의 가와사키 외국인 대표자회의 활동을 평가한다면? 일본인들 사이에서 지명도는 어느 정도인가?
 - 초기에는 획기적 제도로 주목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퇴색되는 면도 있음. 의회의 성격과는 달리 정책을 건의하는데 그치며, 그러다보니 10년동안 계속 반복되는 제안도 있음.
 - 유능한 인재를 다양하게 모집하기 어려운 난점. 초기에는 모든 외국인에게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냈으나, 예산 문제로 이러한 안내가 없어지고 홍보도 잘 안되는 문제가 있음.
 - 한국, 중국계는 일본어를 비교적 잘 하지만 다른 소수집단은 언어소통이 원활치 않은 편이며 인재도 적고 응모도 적은 편임.
 - 인재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외국인대표자회의의 지명도는 낮은 편이다. 일본인들은 국내 외국인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식이 부족해 보임.
 - 그러나 외국인 수가 늘어나고 또 단순근로자가 아닌 어느 정도 교육받은 층이 들어옴에 따라 외국인을 보는 일본인의 시각도 많이 좋아지고 있음.
- 대표자회의에서 열악한 조건의 외국인, 즉 불법체류자 문제를 다루는가?
 - 법적으로 불법체류자 문제는 대표자 회의에서 다룰 수 없음. 이 문제는 주로 민간단체에서 문제제기하고 있음.
 - 언론에서는 불법체류자를 외국인 문제로 크게 보도하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이미 정착된 합법적 정주외국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다.
- 최근의 관심 이슈는?
 - 나는 4년 전부터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아동에게 모어(母語), 모문

화(母文化)를 가르치자는 모어운동을 하고 있음. 시의 세금을 지원받아 모어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 이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외국인대표자회의에 참여하고 있음.

: 외국인이 일본사회에서 살아갈지라도 자기 문화, 자기정체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일본사회에 동화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으나, 동화를 억압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자기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함.

- 라이콤 다문화교실 : 한국어, 중국어교육, 태권도 교육. 시의 민간단체 지원 project 에 선정됨. 시민회관에서 주 1회 개최하고 있음.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초급반에는 외국어를 배우고 싶은 일본인도 참가하고 있음.

: 모어 교육은 가와사키시 어린이 조례에서도 언급됨.

: 외국인 아동은 고등학교 진학률이 50%에 불과한데, 이것은 일본어 교육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즉, 모어 교육으로 기본적인 언어능력이 형성되어야 일본어 실력도 함께 상승효과가 있다고 본다.

- 초기에는 반대가 많았으나 최근 많이 좋아졌으며, 가와사키 (한국, 브라질), 오사카 지역에서만 모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외국인대표자회의에서 복지 문제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은가?

- 복지 부분은 (불법체류자가 아니라면) 일본인과 거의 차별이 없음.
- 불법체류자의 경우 아이는 남겨두고 부모만 본국으로 송환하는 경우가 종종 언론에 보도됨. 아이의 인권 문제, 가족에 대한 경시라고 NGO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가나가와 현 외국인대표자회의와 가와사키시 대표자회의 간의 관계는?

- 상하관계 아니며 별도로 구성됨. 교류회 등을 통해 서로 협력하는 정도임.

[6] 7월 12일 15:00-17:00

- 야마가타시 국제교류센터 · 국제교류협회

- 면담자: 수토 마사히로(야마가타시 국제교류센터 소장, 국제교류협회 사무국장), 고바야시 도시가주(야마가타시 국제교류센터 부소장), 통역: 고바야시 메구미(국제교류센터 국제교류원)

* 야마가타시 국제교류과가 최근에 국제교류센터로 개편되어 국제교류협회와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음.

1. 야마가타시의 외국인 거주 현황 개요

- 일본 전체의 외국인 비율이 1.63%(2006년)인 것과 비교해 야마가타시의 외국인 비율은 1.41%로 낮은 편이다. 2-3년전에 비해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시 이외의 농촌 지역에는 비율이 높을 것이므로 야마가타현 전체로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 외국인 여성이 70% 정도 차지하고 한국 · 조선국적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중국, 필리핀 순이다. 주로 일본인 남성과 결혼한 이들이며 필리핀 여성 중에는 예술 흥행 목적으로 입국한 이들도 일부 있다.

- (외국인이 야마가타시 안에서도 특정 지역, 계층에 집중되어 있는가?) 골고루 퍼져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외국인 여성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는가?) 요사이 일본인들도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외국인 여성들이 일을 찾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일한다면 야마가타는 농업이 중심인 만큼 체리, 사과 수확철에는 집안의 농사를 하거나 다른 집 일을 다니고 공장, 식당도 다는 경우가 있다. 식품 가공 공장 등에서도 일하지 않을까 추측한다.

- (외국인 여성들이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사실, 정착해서 잘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한다.

2. 주요 사업

* 동경이나 가와사키와 비교해 야마가타시나 도자와무라는 자원봉사 인프라가 빈약하

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보다 큰 것으로 보임.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이 제한됨.

* 동경이나 가와사키가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를 총괄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야마가타시와 도자와무라는 이주자의 대부분이 결혼이주여성으로 이들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국제교류센터(이전, 야마가타시 국제교류과)에서는 자매교류도시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외국인 간담회 등을 주로 한다. 국제교류협회에서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일본어 교육, 다문화강좌 등을 주로 하고 있다.

1) 국제교류센터

- 현재 센터의 직원은 7명, 이 가운데 국제교류원 2명(귀화 한국인 1인, 일본계 캐나다인 인).

<외국인 지원사업>

- 외국인 상담창구

- 주별로 특정한 요일, 시간 정해 상담창구 운영
- 중국어, 한국·조선어, 영어, 타이어 등 주요 언어별로 일자와 시간을 정하여 상담.
- 일반상담: 주택, 교육, 연금, 보험 등 시 업무 관련 정보 제공, 일본어교실정보 등. 상담통역원 15명 활동(한국인 3인, 중국인 4인, 필리핀인 1인 등).

주로 체류자격과 관련된 일반 상담과 시업무 관련 상담, 혼인관계, 이혼 등에 대한 상담이 대부분.

- 전문상담: 법률, 체류자격 등 사법서사가 상담. 체류자격, 가족내 폭력, 상속 등에 대한 상담이 대부분.

- 시청 업무 통역 파견

. 시청의 모자보건, 육아지원, 생활보호 업무, 보육시설 면접 등에 통역 파견.

<야마가타시외국인시민다문화공생간담회>

- 2005년 구성

- 일상생활과 시정에 대한 외국인들의 의견 청취 기회. 연 3회 개최

- 10개국 15명으로 구성(일본인 2인, 외국인 13인)

- 일본국내에 1년 이상 체류한 20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공모. 응모자가 많지는 않음.

<무라야마광역지역 외국인 대상 일본어 습득 지원사업>

- 야마가타현 무라야마지역(야마가타시, 사가에시, 텐도시 등 4개 시, 2개 정 포함)내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업으로 서비스 광역화의 사례로 검토해볼 가치가 있음.

- 일본어 도우미 파견

.일본어 학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 자녀-무라야마 내 17명 있는 것으로 파악, 주로 외국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들-를 대상으로 학교나 집으로 1대 1 방문하여 일본어나 다른 과목의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 초기에는 일본어 하는 외국인이 방문하는 경우도 있음.

.예산은 각 시의 교육위원회에서 지원. 도우미들을 지원하는 코디네이터는 야마가타시에서 예산. 코디네이터는 지역의 수유와 코디네이터를 연결하는 역할을 함. 작년까지 도우미 코디네이터가 있었으나, 올해는 코디네이터 없이 각 시의 교육위원회가 직접 도우미 파견하고 있음.

. 2004년에는 일본인의 고용창출과도 관련하여 예산 규모가 컸으나 이후 줄어들고 있음.

- 일본인 교사 대상의 연수회

외국인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교사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학생들이 경험하는 이문화 적응과정과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출신문화와 모국어의 중요성에 대한 연수회 개최

-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학습지원

- 진학상담, 교육상담창구, 교육정보교환회, 모국에서 의무교육을 마친 청소년을 위한 취직 정보 제공(정보만 제공. 구직/ 구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음.)

2) 국제교류협회

- 1991년 설립. 야마가타시장이 회장, 개인회원 305명, 단체회원 32개 단체

<외국인지원사업>

- 생활강좌

.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일본어 강좌가 중심이 됨.

. 특히, 지역의 자원봉사자와 일본어를 잘하는 외국인(한국인 등)이 팀이 되어서 하고 있음. 단순히 일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외국인들이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점을 주목하고 있음.

- . 이외에 물건사기, 야마가타시의 시설 견학 등도 추진.
- 일본어 지원사업
- . 1회당 5000엔의 참가비
- . 초급 1, 2, 중급 일본어 교실 개설, 1회당 36시간 프로그램
- . 중급 프로그램까지 마치면 어느정도 회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은 되지 못함. 그 이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해야.
- 정보 번역 제공
- . 한달에 두 번 발행되는 시보 중 핵심내용 번역(자원봉사 번역가)하여 제공.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국제교류·국제이해사업>

- 자매결연도시와의 협력사업(예: 마라톤대회 등)
- 다문화소개강좌
-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특정 국가(베트남, 한국, 타이 등)에 대한 소개 강좌
- . 생활강좌에서 공부한 외국인들이 참여하도록 권유. 교육받을 뿐 아니라 교육 하도록.
- 이외에 학교의 국제이해교육에 연결해주기도 함.
- . 지역내 공민관이나 그 외의 공공시설을 순회하면서 개최
- 시민-외국인 교류사업 . YY 카페 등
- 볼런티어 연수, 교류회, 일본어 지도자 연수회. 통·번역 볼런티어 연수회 등

<통·번역서비스>

- 유료 서비스, 통역자 소개, 외국인 강사 소개 등

* 결혼이주여성과 자녀의 일본어 능력을 함께 향상시키기 위해 어머니와 아이가 함께 하는 일본어 교육 계획 중임.

* 센터나 협회나 예산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새로운 사업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계속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는 어려운 상황임.

* 신주쿠나 가와사키 등에 비해 지역내 NPO가 활발하지 않아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이 약한 것으로 보임. 야마가타시의 대표적인 NPO로 NPO 아이비 국제볼런티어센터를 추천함. . 이 단체에서는 의료통역(유료)을 진행하며, 베트남에서 농사를 짓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다고 함.

[7] 7월 13일 14:00-16:00 (고려관 관람 16:10-17:00)

- 도자와무라 · 도자와무라 국제교류협회

- 면담자: 산업진흥과 前田公平, 국제교류협회 Haga Kinichi 회장

- * 일본의 어느 농촌지역과 같이 도자와무라는 인구 감소로 인해 농업후계자가 줄어들고 이들의 결혼문제가 심각했었음. 이에 도자와무라는 인근 아사히마치 등과 더불어 국제결혼을 추진하였음. 처음에는 필리핀에서 출발하여 도자와무라의 담당자가 각 나라로 가서 국제결혼을 직접 진행하였음.
-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국제결혼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결혼추진 사업을 중단했음. 대신 개인적 차원의 국제결혼은 계속 진행되고 있음. 현재에도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결혼에 대한 비판에 상당히 민감한 듯 함.
- * 도자와무라 국제교류협회는 임의 기구로 '회장'과 국적별 리더로 구성됨. 자체적 사업은 없으며, 대외적으로 도자와무라의 국제교류사업을 알릴 때 등장하는 정도임.
- 현재 외국인 주민 37명 (전체 인구는 5,924명. 매년 100명 정도씩 감소 추세). 모두 결혼이주 여성. 중국인 15명, 한국인 11명, 필리핀 11명.

1. 결혼여성의 현황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들이 별 문제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함.
- 이 지역은 주로 밭농사가 많은데, 농사일이 싫다는 여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음. 주로 농업 이외에 공장일(의류제조공장)이나 배 가이드 등을 하면서 밭농사를 하고 있음. 한국 등 출신국에서는 농업을 안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요사이 농사는 그리 힘들지 않아 여성들에게 큰 부담은 안되는 것으로 보임.
- 외국인들에게 힘든 일은 시키지 않음. 아이들이 태어나고 생활을 위해서 여성들이 자진해서 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 * 고려관 옆에서 운영 중인 김치공장(김장랜드)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것임. 아사히마치에는 김치공장을 운영하는 한국인이 있는데, 전국적인 판매망을 가지고 있으며 연간 6천만엔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다는 소문이 있음.
- 여성들은 도자와무라 뿐 아니라 신조 등 인근지역까지 직접 운전을 해 일하고 있음.
- 이주여성들은 PTA 활동도 활발히 하고 충북 제천 송학면과의 교류 등을 통해 지역

민들과 신뢰를 높여가고 있음.

- 지역 여성들이 활동하는 식품개선훈련그룹, 부인소방단, 각종 이벤트 등에도 이주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특히, 한국음식 홍보에는 적극적임.
- 고려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사에도 참여. 농악단 구성, 가야금 연습 등.
- 이주여성들 중 국적별 리더를 통해 여성들과 협력하여 일하고 있음. 국제교류협회에서는 2년에 한번씩 국적별 리더를 선정해 통보하도록 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여성들에게 정보를 확산하거나 각종 행사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음.

2. 결혼이주여성 대상 서비스

- 일본어 교육

- . 1990년부터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교육.
- . 남편, 시어머니 등 가족에게는 여성들의 모국어 교육
- . 일본어 교실에서 언어 이외에 생활 상담도.
- . 종교, 식문화, 습과 등의 이해 부족으로 가족 내에서 갈등을 겪는 경우 스트레스 해소하고 정보도 교환할 수.
- . 현재 일본어 강사는 신조의 컴퓨터학원(일본어교육도 전문적으로 하고 있음) 강사를 초빙해 하고 있음. 11회 강의. 이외에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있음.

- 법률공부

- . 사회보험, 권리와 의무 문제, 교육문제, 상속 등에 대한 법률적 지식 강의
- . 부정기적 교육

- 모두 행정예산으로 강사 초빙해 운영하고 있음.

- 교육지원

- . 자녀교육에 대한 여성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하여 입학할 때 어머니가 사전에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제교류사업 참여

- . 무라에서 추진하는 국제교류 행사에 참여.
- . 도자와무라에서는 아시아학원(농업전달학교) 연수생들과 정례적인 교류
- . 충북 제천 송학면과 정기적인 교류(충북 제천 송학면 출신의 여성이 아시아학원 연수중 마을을 방문하여 결혼이주여성들과 교류하기도 함.)

- 외국인 상담창구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무라 담당자에게 와서 의논함.

- 일본인 주민과 외국인 주민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음. 시어머니하고의 갈등은 있지만, '일본인'과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일본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국제이해 프로그램은 진행되지 않고 있음.
- . 대신 외국인 방문자 홈스테이를 통해 외국인과 이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음.
- . 이외에 한국인 여성이 학교를 방문하여 한국문화, 요리를 교육하기도 함.

<고려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은 민간에서 맡아 하고 있음. 종업원 총 24명. 이 가운데 한국인 1인. 이외에 필리핀 1인도 있었으나 얼마전 그만 둠.
 - 1999년 도자와무라 신흥계획 수립. 무라의 PR 이미지 구상. 특징이 될 만한 것 잡으려. 당시 한국과의 교류 활발한데 착안. 한국을 테마로 한 시설로하기로 결정함.
 - 도자와무라에서는 1987년부터 토치기켄에 위치한 농업전달학교 아시아학원 학생들과 교류. 이 가운데에서도 송학면과는 1985년부터 교류.
- 여기에 1990년부터 한국에서 결혼해온 여성들이 생겨남.
- 현재 고려관은 한국을 상징하는 조형물의 형태로 조성되어 한국과 관련된 각종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한국음식점도 있음. 이 가운데 도자와무라에서 생산한 김치, 인근(마무로까와)에서 생산된 냉면도 판매되고 있음.